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2)

- 청양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청양군(靑陽郡)은 1914년에 청양군과 정산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청양군이 되었다.

청양(靑陽)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구로국(狗盧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며,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이 설치되었고, 삼국통일 후 경덕왕 16년(757)에 고량부리현을 청정현(靑正縣) 또는 청무현(靑武縣)이라 개칭하여 임성군(任城郡 : 지금의 대흥)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초에 청양현(靑陽縣)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종 9년(1018)에 청양현을 천안부(天安府)의 임내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홍주(洪州)로 이속시켰다. 청양 고을에는 고려시대에 수령이 부임하지 않다가, 조선의 태조 4년(1395)에 이르어서야 비로소 감무가 파견되기 시작했으며,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치는 규례에 따라 청양현감이 부임하였다. 청양현은 현종 5년(1664)에 삼성(三省) 좌인의 출생지라 하여 고을이 혁파되고 정산에 합쳐졌다가, 10년 후인 현종 15년(1674)에 복구되기도 했다. 청양현은 1895년(고종 32)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청양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청양군(4등군)이 되었고, 1914년 군면폐합을 실시하면

서 정산군을 편입한 청양군이 되었다.

정산(定山)은 백제의 열기현(悅己縣, 또는 豆陵·尹城·豆串)으로,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757)에 열성현(悅城縣)으로 고쳐서 부여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시대에는 태조 23년(940)에 정산현(定山縣)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에 공주의 임내에 붙이었던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에서는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폐지하면서 종6품의 현감이 수령으로 부임하였다. 고종 32년(1895)에 23부제를 실시하고 모든 고을을 군으로 바꾸면서 공주부 정산군이 되었다가, 고종 33년(1896)의 13도제하에서 충청남도 정산군(4등군)이 되었다. 1914년 대면(大面)과 잉면(仍面)을 합쳐 정산면으로 한 다음 청양군에 병합시켰다.